

# “세대 간 트렌드 집중...미디어 환경·수요 파악해야”

##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윤혁진 오로지스튜디오 대표, 숏폼 제작 등 설명  
숏폼, 평균 시청시간 4초...짧고 강한 메시지 필요  
개인·기업별 색깔 반영한 맞춤형 브랜딩 강조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윤혁진 (왼쪽)오로지스튜디오 대표는 18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순식간에 숏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는 “숏폼(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시대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기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숏폼의 흐름은 짧은 시간에 시청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 재생으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며, 참여·유입·전환까지 이어지는 빠른 소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짧고 강력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 41.8%가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는 숏폼으로 확인됐다.

이는 OTT(39.4%)나 실시간 스트리밍(26.2%)을 앞서는 수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시청비(시간 대비 성능비) 트렌드 속에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숏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 시청시간이 단 4초인 숏폼의 시대 콘텐츠를 잘 만들고 싶다면 1~2초 안에 승부처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트렌드는 이미 검증된 콘텐츠이며 심리적 팬들이 많다”면서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기 쉬워지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를 기억해야 하며, MZ세대 등 세대를 읽어야 트렌드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영상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활용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표는 유튜브 숏폼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강의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SNS를 통



윤혁진 오로지스튜디오 대표는 18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순식간에 숏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는 “숏폼(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시대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기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 퍼지는 다양한 주제와 직접 작성한 기사를 이용해 기자들이 영상을 제작해 보는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또 ‘브랜딩’ 즉, 콘텐츠를 플랫폼별로 맞게 기획·제작하고, 반복적으로 브랜드 요소를 노출해 ‘개인이나 기업만의 색깔’을 시청자에게 기억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편집은 이제 아무것도 아

니며 기획을 살려야 하며, 개인과 기업에 브랜딩을 심어야 한다”면서 “짧아도 상관없으나 꾸준히 제작을 해야 하며 최신 트렌드와 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진행한 윤혁진씨는 (왼쪽)오로지스튜디오 대표로 (전) 호남대학교, 동강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했으며, 구독자 8600명의 광주맛집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로지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오로지 스튜디오는 2020년 창업진흥원 선정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했고 202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튜브 채널 컨설팅, 광고 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로 지역을 대표하는 영상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역에 숨겨져 있는 로컬 관련 놀거리와 먹을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짧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유튜브와 같은 SNS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삼성전자·AMD,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협력 확대  
삼성전자는 18일 평택사업장에서 미국 AI 반도체 기업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평택 팹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왼쪽)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로봇, AI로 재편”

### 정기 주주총회 개최...경영 성과·사업 전략 등 설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참석 주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경영 성과와 올해 사업 전략 등을 설명했다.

전 의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333조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주기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투자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

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삼성전자만의 미래 기술력을 전사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부터 일상 속 AI 경험까지 ‘AI 기술의 모든 것’이 소개된 것이다. 행사장에는 AI 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등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되는 최신 ‘AI 반도체’가 전시됐다.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 ‘HBM4·4E’, 고용량·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AMM2’, 고용량 데이터 저장·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SSD ‘PM1763’ 등이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HBM4와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전시해 주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의 HBM4는 첨단 메모리 제조 기술인 1c D램 공정과 자체 파운드리 4나

노 공정을 업계 최초로 적용해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의 강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또 삼성전자는 ‘AI 고객경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주주들이 스마트폰, TV, 가전, 의료기기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된 차별화된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주주들은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제품이 선보이는 최신 AI 기능도 선보였다. 아울러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업계 리더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 제품도 소개했다.

‘미래 베젤’이 적용된 ‘140형 마이크로 LED’,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투명 마이크로 LED’, 130형 마이크로 RGB TV 등 향후 성장 동력이 될 미래 디스플레이를 주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11명의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에너지 서비스 한 곳에...‘슬기로운 전기생활’ 오픈

### 한전, 요금 절감 팁·취약계층 혜택 등 39종 통합 제공

모든 전기사용 서비스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축된 에너지절약 플랫폼이다. 에너지 복지혜택,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안내 등 주요 서비스는 지난 16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esp.kepco.co.kr) 또는 ‘한전ON’을 통해 접속하거나 검색창에서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검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일반 가정, 소상공인, 산업체 등 요금 절감 팁이 필요하거나 다자녀·출산 가구 및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요금 지원 혜택이 필요한 모든 고객을 위해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했다. 서비스 정보 확인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내 혜택 찾기’ 기능에서 가 구원 수, 자녀 수 등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놓치고 있던 에너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용도별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을 안내하고, 복잡한 보조금 절차와 생소한 용어로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출산 가구 및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요금 지원 혜택이 필요한 모든 고객을 위해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했다.

서비스 정보 확인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내 혜택 찾기’ 기능에서 가 구원 수, 자녀 수 등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놓치고 있던 에너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용도별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을 안내하고, 복잡한 보조금 절차와 생소한 용어로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선보인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 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DR’ 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플랫폼 오픈을 기념해 국민 참여가 사회적 기부로 이어지는 ‘참여가 곧 기부’ 매칭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6월 15일까지 플랫폼 방문, 에너지절약 관련 영상 시청 등 참여 실적에 따라 한전이 기부금을 마련한다.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중기부, 국가전략기술 100개 과제 직접 지원

### 반도체·AI 등 12개 분야 대상...상반기 1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민간공동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술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간 협력으로 지원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성숙도(TRL)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에 공고된 ‘TRL 점프업(1단계)’은 전략기술 분야의 실험실 단계 고난도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산·학·연 공동 R&D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이버공공기술 이전 이후 필요한 초기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다.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2차)에는 총 100억원,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되고, 공공기술 이전 이후 필요한 초기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이버공공기술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38개 지정과제(RFP)도 발표했다.

TRL점프업은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단계(PoC·PoM)를 지원하고, 향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내년 2단계 사업화 R&D로 연계할 계획이다.

“TRL 점프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4월 7~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절차는 중기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TRL 점프업 공고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을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끌어올리고,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